

□ 성년의 의미는 무엇인가

끝없는 대지에 가슴을 열어라

과연 성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순히 법적인 나이만 됐다고 해서 누구나 성년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대학교 2학년이면 인생의 한 과정인 성년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 성년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포함해 앞으로의 삶도 책임져야 한다. 거기에는 그 누구의 간섭도 없다. 오직 자신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 신문에서는 성년의 날을 맞아 그 진정한 의미와 것들을 가능하고자 한다.

(편집자)

김명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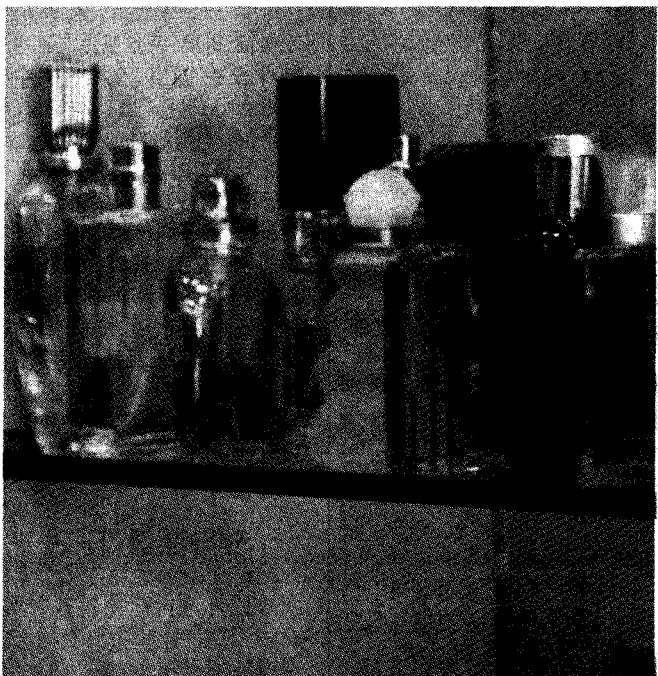
(교육사회학 강사)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생일과 성탄절에는 파티라는 것을 하고, 선물만이 아니라 술잔이 오가는 기이한 습관이 생겼다. 이에 신입생 환영회와 발렌타인 데이가 자리를 잡더니, 금기야는 성년의 날이 가세하게 되었다.

지난 며칠, 성년의 날을 앞두고 계획을 짜느라고 빼빼와 핸드폰이 더욱 빠르게 유통되었다. 우리끼리라도 만나서 자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대화들이 오갔다.

성년의 특권

성년의 날을 맞이하며 무엇을 느끼는가? 강의 중에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았다. 20세가 넘는 학생들은 울며 성년을 맞



는 학생들을 쳐다보았고, 정작 그들은 생각해 본 일 없다는 듯한 낯선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려운 물음이었나? 질문은 이제 여기서 그만 둘 수가 없어졌다. 달라지는 것은 술집 출입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든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든가, 일을 저지르면 자신이 책임

임을 져야한다 등의 대답이 이어졌다. 아이는 자라나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물론 좋은 점에 상관없이 '거쳐면서 자신이 이미 다 컸음에도 어른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스러워 한다. 이제 아이는 분명히 어른인데, 미성년이라는 표를 부쳐놓고

학생들 대다수가 성년의 날에는 향수와 장미(우측 위)를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제 나 자신 개인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내가 속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게 된다.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독립도 해야하고, 가정도 꾸리면서 자녀를 돌보아야 할 뿐더러, 한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에 대한 기여도 의무로 다가온다.

이것은 사회적인 의무일 뿐만 아니라, 인간 본연의 욕구이자 권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법이 미성년과 확을 그어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해서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노력하여 해야 하는 일이다.

많은 어른들로부터 이런 훈계조의 말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어느 사회학자가 지적했듯,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과거의 성인들이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우리 자신의 삶을 만들어야 한다. 게다가 성년을 맞이하는 어느 학생의 말이 나에게 절책은

적 지위·특권과 함께 사회에서 맡게 되는 역할의 질과 양도 달라진다.

이제 나 자신 개인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내가 속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게 된다.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독립도 해야하고, 가정도 꾸리면서 자녀를 돌보아야 할 뿐더러, 한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에 대한 기여도 의무로 다가온다.

이것은 사회적인 의무일 뿐만 아니라, 인간 본연의 욕구이자 권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법이 미성년과 확을 그어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해서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노력하여 해야 하는 일이다.

많은 어른들로부터 이런 훈계조의 말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어느 사회학자가 지적했듯,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과거의 성인들이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우리 자신의 삶을 만들어야 한다. 게다가 성년을 맞이하는 어느 학생의 말이 나에게 절책은



기성인을 비판하던 자신들이 성인이 되면서 침착한 마음이 든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낙관적으로도 보려고 한다. 이제 서로 믿고, 함께 맞고들 정진해야겠다.

또다른 한걸음

매해 첫날이면 누구나 새로 맞는 해를 맞이하여 설레고 해보고 새로운 각오도 해본다. 그러나 어찌 생각해 보면, 매일매일이 다 한번 오는 날이어서 더 소중한 것 같고, 더 소중한 것이 없음에도 매해 첫날을 각별한 날로 여기는 것은 우리가 그날을 새로운 각오를 하는 특별한 계기로 삼기 때문이다.

성년의 날도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마음으로 맞이하여야 하지 않을까.

인간이 인간답기는 힘들듯 성인이면서 어른답기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무거운 짐만도 아니다. 그것이 삶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이며, 노력으로 이런 일에 인간은 더 크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기성세대를 비판하며 더 나은 개인을, 더 나은 세대를 일구고 싶은 정열을 키워오고 또한 이제까지 키워 온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다.

젊지 않은가! 이제, 성년이 됨을, 성인이 됨을 자축하자!

문화단신

일교성 노예

- 일본군부대내에서 자행되었던 성적유린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한 살육의 현장을 보여주는 이북녀할머니의 실제 이야기 작품
- 제4회 세계여성영극대 공식 초청작
- 오는 28일(수)까지
- 홍민우(연출), 허길자(극본), 허길자(출연)
- 마당예술극장
- ☎ 737-5773

점아 점아 콩점아

- 5·18때 광주에서 죽은 총각과 6·25때 죽은 북한 처녀의 망자혼례를 굿을 통해 표현
- 세계 마당극 큰잔치 97경기/과천의 공식초청작
- 김명준(연출), 방은미(제작) 무대미술(김남수)
- 6월29일(일)까지
- 소극장 아래방
- ☎ 741-6069

거짓말하는 여자

- 유쾌한 거짓말속의 행복찾기라는 이색적인 내용의 코메디
- 97 사랑의 연극잔치 공식참가 작품
- 6월15일(일)까지
- 바탕골 소극장
- ☎ 745-5127

시리즈-경희의 유산을 찾아서

⑨ 불상

오일환, 이연의

(중앙박물관 연구실)

본교 박물관은 통일신라시대의 금동여래입상, 석조관음보살상과 고려시대 목조도금여래좌상, 조선시대의 석조여래좌상 등 많은 불상을 소장하고 있다.

불상에는 석가모니불과 보살상이 있다. 이외에도 호법신인 사천왕상, 금강역사상과 수행모습의 나한상 등이 있다. 불상은 대부분 대좌위에 놓여 있으며 상 뒤에는 광배가 있다. 주

위의 화염문양이나 화불장식은 부처의 신성함이나 불타세계를 상징하기도 한다. 불상은 머리모양, 법의, 손의 모습, 지불 그리고 두 다리의 자세에 따라 상징하는 의미가 달라진다.

우리나라는 불교 유입과정에서 새로운 도상이 첨가되고 지역적인 특성이 반영된 불상이 유행하였다. 삼국초기는 암벽에 부조로 표현된 석조불상과 금동반가사유보살상이 많다. 말기에 이르러 입체감이 강조되고 법의표현도 자연스러워진다. 6세기 고구려의 기묘한 금동불입상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었다. 백제 불상은 부드



럽고 온화한 조형성이 있다. 신라에서는 관음신앙이 유행하여 금동 관음불상이 많이 만들어졌다. 통일신라의 보살상은 장식적 화려하고 허리를 약간 비틀면서 자연스럽게 서있어 균형

형을 유지하면서도 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후기에는 철불상이 많이 등장하며 특히 비로자나불 좌상이 많다. 고려시대에는 풍만한 조형을 가진 비로자나불과 기둥같은 몸체에 관

우리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석조불상

을 쓴 토착성이 강한 민간신앙과 밀착된 불상들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개인 소장용 불상이나 여행 중에 소지할 수 있도록 전각 내부에 부조하거나 안치하는 형태가 나타난다. 조선시대에는 억불숭유정책의 영향으로 개성이 없어져서 불신의 머리가 크고 신체 묘사도 형식적이며 조각기법도 뒤떨어졌다. 이처럼 불상 양식은 넓은 지역과 긴 시간에 걸쳐 발전하면서 변천하였다.

불교의 가람은 수도 생활을 하는 곳이다. 불기 2541년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경희가람에서 올바른 전례의 깨달음과 인격의 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해와 있다.

신용철

(사학과 교수)

최근 KBS의 역사 대하 드라마인 '용의 눈물'이 오늘날의 혼란하고 불투명한 시국과 관계되어 커다란 인기 속에 방영되고 있다. 나는 서울에서 아주 가까운 포천군과 남양주시에 걸쳐있는 태조 이성계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았다.

내촌면의 마령리는 순수한 우리말로 '말구리'라고 하는 데 2차례 왕자의 난으로 분개한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함흥에 갔다가 돌아올 때 그가 탄 말(馬)이 울었다(鳴)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여기서부터 47년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약 2km 내려오면 오른쪽에 '여덟배미(여덟 배

에서 유래)'란 얀현(淹峴) 3리 부락이 있다. 바로 이 부락에서 태조 이성계가 여덟 배를 묵고 갔다는 전설이 얹혀 있다.

다시 47년 국도를 따라 내각리(內閣里)에 이르러 남쪽으로 6km쯤 되는 곳에 여덟배미로부터 서울로 향하던 태조가 마음이 변하여 다시 되돌아 갔다는 퇴계원(退溪院)이 있다.

퇴계원은 태조가 서울로 향하다가 내각리로 되돌아간 것과 관계되어 붙여진 지명이라고 한다. 태조가 신하의 말을 따라 무의식중에 이 곳에 와서 서울(한양)쪽의 지세를 보다가 속은 줄 알고 되돌아갔다고 전해지기도 하며 처음에는 조정이 물러갔다는 뜻으로 퇴조원(退朝院)이라 했다고 한다.

웅대한 꿈을 안고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면서 어렵게 세웠던 새로운 나라 '조선왕조'의 첫 번째 임금인 태조였지만 그 역시 흐르는 역사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였던가! 난폭할 정도로 영악했던 다섯째 아들 태종이 저지른 두 차례 왕자의 난을 피해 함흥으로 향했을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마지못해 돌아오면서도 그의 발길이 결코 가벼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말구리에서 말이 울었다고 하지만 어찌 말만이 울었겠는가! 태조 이성계 역시 회한의 눈물을 뿌렸으리라.

여덟 배미의 낯설은 산골짜기의 절에서 묵으면서, 또는 퇴계원에서 되돌아서면서, 다시 내각리에서 임시로 거처를 정하면서 그는 저물어 가는 인생에 대한 무상감을 결코 떨쳐 버릴 수 없었으리라. 내가 항상 왕래하는 고향의 이정든 길 위에는 조선 건국의 가장 큰 용이었던 태조 이성계의 눈물이 한없이 뿌려졌으리라 생각해 본다.

민족하나됨의 작은 걸음을 시작합니다

• 이번호에 실지 못한 단체는 지면관계상 다음호에 연재합니다. **북녘동포돕기 모금액 1차집계**

노동조합(서울)

김종원 5만원, 이석호 5만원, 김동선 5만원, 원형연 5만원, 이기원 5만원, 이창우 1만원, 고석환 1만원, 박종식 1만원, 이병두 1만원, 안환근 1만원, 이진태 2만원, 이병홍 1만원, 장용덕 2만원, 패정식 2만원, 박기성 1만원, 김우기 1만원, 오세용 1만원, 이주는 1만원, 원승상 1만원, 이만태 2만원, 김학용 2만원, 유병철 2만원, 변영주 2만원, 장진태 2만원, 한기호 2만원, 장부순 1만원, 김향란 5만원, 최병희 1만원, 김규근 1만원, 이대식 1만원, 정한옥 1만원, 안영설 2만원, 이종범 1만원, 박종석 2만원, 장대인 1만원, 김영희 1만원, 노원근 1만원, 원명관 1만원, 김성남 1만원, 이도영 1만원, 이훈용 1만원, 원병덕 1만원, 주영남 1만원, 박희준 2만원, 박재규 2만원, 안천수 1만원, 김공금 1만원, 변복남 1만원, 최인실 1만원, 장은식 1만원, 심종택 1만원, 김진구 1만원, 김광식 2만원, 이창우 1만원, 이철룡 1만원, 김점식 1만원, 조남진 1만원, 이충우 1만원, 김용복 1만원, 전세남 1만원, 김봉현 1만원, 나승목 1만원, 조남원 1만원, 유태학 1만원, 김호영 1만원, 조복현 1만원, 김동순 2만원, 김재철 1만원, 이진훈 1만원, 장공희 1만원, 김영중 1만원, 권용근 1만원, 백호현 1만원, 김승철 5만원, 박천수 5만원, 이진우 5만원, 김우순 1만원, 지금자 1만원, 오옥영 1만원, 박순녀 1만원, 이진우 1만원, 김창자 1만원, 권선식 1만원, 이창자 1만원, 김기원 1만원, 류문주 1만원, 유삼심 1만원, 김영옥 1만원, 최옥자 1만원, 이순자 1만원, 이영석 2만원, 김순연 2만원, 박종임 1만원, 안금환 1만원, 남성우 2만원, 이희희 2만

원, 조인숙 2만원, 이미숙 2만원, 김현진 2만원, 최정인 2만원, 이순희 1만원, 유숙자 1만원, 황옥선 1만원, 이도희 1만원
총액: 1백63만원

(수원)

김형장 2만원, 김희삼 2만원, 김인득 2만원, 송호남 2만원, 심광식 2만원, 최필호 2만원, 한영신 2만원, 장경호 2만원, 이태권 2만원, 김동섭 2만원, 박일수 2만원, 신덕철 2만원, 김용식 2만원, 윤준태 2만원, 백옥기 2만원, 김현기 2만원, 최창규 2만원, 양상용 2만원, 박영은 2만원, 유하재 2만원, 심종수 2만원, 정준식 2만원, 김성기 2만원, 장정훈 2만원, 유창열 2만원, 이강하 2만원, 황인철 2만원, 강호원 2만원, 한순기 2만원, 서순이 2만원, 배순이 2만원, 이경순 2만원, 장숙자 2만원, 신경순 2만원, 이종에 2만원, 진영자 2만원, 김용자 2만원, 김영열 2만원, 이희남 2만원, 김도순 2만원, 황금자 2만원, 김민자 2만원, 장순이 2만원, 이희순 2만원, 김금남 2만원, 박성복 2만원, 이수자 2만원, 장정숙 2만원, 라종은 2만원, 이부자 2만원, 이정미, 최안순 2만원, 차숙자 2만원, 신영하 2만원, 이재동 2만원, 서문자 1만원, 김선복 1만원, 홍문래 1만원, 이영숙 1만원, 조신옥 2만원, 신종하 2만원, 정경환 2만원, 이경범 1만원, 장영우 2만원, 백남식

2만원

총액: 1백25만원
민주노동회

조세열(사학) 5만, 박광종 5만, 고동주(사학) 5만, 서정상(사학) 20만, 이현숙(사학) 20만, 서정식(사학) 5만, 이명숙(사학) 2만, 임동준(사학) 1만, 김성중(사학) 1만, 최수현(사학) 10만, 박병근(사학) 1만, 김향란(철학) 5만, 박찬호(철학) 1만, 심재중(경영) 1만, 김상숙(철학) 3만, 동삼순(철학) 3만, 임현주(철학) 2만, 오인택(법대) 5만, 장복철(법대) 2만, 이찬민(법대) 1만, 김재용(경제) 3만, 김수복(경제) 5만, 정연근(경제) 5만, 박성규(경제) 1만, 신문희(화학) 2만, 김동수(무역) 1만, 하현중(정외) 5천, 민학기(미교) 4만, 박영준(미교) 2만, 유연영(화학) 3만, 이진호(화학) 2만, 이창훈(지리) 1만, 강명화(물리) 2만, 이등준(토목) 30만, 김경수(토목) 2만, 유영철(공대) 2만, 이재근(원자) 5만, 이정태(수학) 2만, 허희승(물리) 1만, 손기순 5만, 박영수(경영) 1만, 김수원(환경) 1만, 강일권(기계) 2만, 최창식(전산) 1만, 이만재 북한동포돕기 특위원회 50만, 이만재 동문의 직장 '서일산업' 직원 일동 50만, 이상실(이만재 동문의 친구) 2만, 장지연(의학) 5만, 김영목(의학) 1만, 김구정(국문) 5만, 전재현(국문) 10만, 우동연(국

문) 1만, 김용환(국문) 1만, 우정애(국문) 5만, 최진아(영문) 6만, 문소라(영문) 1만, 신수정(영문) 5만, 김봉우 회장 1만, 영인(한외) 5만, 박철(한외) 5만, 임병목(한외) 10만, 김학희(한외) 12만, 김병수(수학) 5만, 정윤희(수학) 5만, 김용호(생물) 1만, 구경희(간호) 10만, 이명숙(생물) 1만, 이은희(생물) 5만, 권희영(생물) 4만, 김재순(생물) 1만, 홍지연(간호) 5만, 홍재원(생물) 1만, 이혜성(생물) 2만, 박영철(치대) 10만, 문은영(치대) 5만, 서남영(치대) 5만, 정상호(치대) 1만, 장현주(치대) 10만, 이상복(치대) 1만, 김은하(약학) 5만, 장봉원(치대) 1만, 배진희(철학) 10만, 서울교정 86도임 '한배' (회장 박종희·무역) 20만, 고향탈 87도임(대표 정용원·무역) 10만, 가정대 집행부 4만

총액: 466만5천원(이중 2백만원은 4월25일/총 2백61만원 5월12일 전 국내학민주동문화협회에 전달/잔액 5만5천원 3차분으로 전달 예정)

대학원

국문과 12만원
권오희 오대호 윤송아 김수이 이성천 오정석 전석기 심현정 고인환 이정희 이봉일
영문과 대학원생 일동 7만3천원
인문학연구소 대학원생일동 4만원

신방과: 홍준일 1만원
학생회실 모금함/교수대학원생 한마당 모금함 6만원

총액: 30만3천원
박완수 1만원
한외과대학 사상의학과 대학원생 8만5천원
윤종현 이자열 이상용 이상길 김종덕 김인태 조민상 최경호 한기환 이수경 손상근 홍석철 이의주 김수범 문성관
신경정신과 대학원생 9만원
이조희 현정철 박정현 백지성 유재현 안상훈 김보균 박일화 지상은 이재혁 우주영 이승기 차운주 성우용 홍대성 강원근
이영석 조운숙
소아과 4만원
김경선 신원규 정재현 이승준 최혁용 박성남 신동길 이 훈

1내과 4만원
6내과 3만5천원
이성현 안영민 홍종수 이명규 강신익 황상호 이희정
재활의학과 2만5천원
송병재 김성옥 신현택 송미연 송재철
외과과 5만5천원
김윤범 김해정 이종을 최규동 김경준 강

명석 류해정 홍승욱 조용주 남해정 최은성
병리학 7만5천원
신승호 이금호 김성우 심범상 박경모 최선미 손종곤 박종현 강대인 이진화 성희근 나기환 이기룡 전영수
생리학
정형상 이선호 박승정 박소현 이재석 류나미 우태을 하태원
원전외과 8만5천원
양영준 김기왕 백유상 김미선 류정아 양성환 이대기 차용석 정현석 조대진 송병관 문희석 김홍균 백상룡 고선진 임동명 3내과 10만5천원
강재준 박계기 박정호 고영권 공현식 김해정 김명권 여대원 이영환 이태일 윤성우 권오희 정영태 윤희석 민경아 조유경 김동욱 신병철 박재민 김윤관 박상현 5내과 6만원
이주희 김나기 전상복 박광은 차은수 백동진 허승철 조영민 정진용 권혁성 김승수 왕중권
부인과 10만원
임은미 조병욱 김상우 김형준 송은희 백송희 박현숙 이은미 이재성 구은정 이진무 이수필 조정훈 문희정 이인호 정현식 김봉남 장미경 신민숙 이승재
총액 85만5천원

경희학원 거래사랑 운동본부